



보도일시	2022. 2. 11 (금) 오전 10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취재 및 보도 협조 부탁드립니다.				
단체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 선대위 남부권경제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	홍익락		
		공동위원장	김승남, 김성주, 송갑석, 이상헌, 박재호, 김정호 (이상 국회의원)		
담당자	김지연 공동부위원장 / 010-8855-4848	사진	영상	기타 첨부자료	

이재명 후보의 '남부수도권 구상' 대토론회 개최

2.11(금) 오전10:30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지난 주 봉하마을에서 이재명 후보가 발표한 <남부수도권 구상>이 지역 사회와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받고 있다. 어제(2.10)는 영호남제주권역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35인의 지지선언 기자회견이 진행되었다.
- 이재명 후보는 <남부수도권 구상>을 발표하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수도권 동북아중심구상>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충청 행정수도>로 이어지는 민주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완결판이자, 세계 5대 강국으로 가는 핵심적인 경제성장 전략임을 강조했다.
- <남부수도권 구상>은 기존의 균형정책에서 노정된 중앙과 지방 사이의 불균형 관계와 여전히 시혜와 배려의 대상에 머물고 있는 남부 지역에 ‘내생적 성장 동력’을 키워 또 하나의 ‘초광역권 경제수도권’으로 키운다는 구상이다.
- 이를 위해 현재의 서울 중심 <중부수도권>과 대비되는 영호남제주를 묶어 <남부수도권>을 구성, 싱가포르와 경쟁하는 국제 금융·무역 허브 도시이자 대만과 경쟁하는 제조산업과 미래형 신산업이 공존하는 경제권역으로 육성, 2035년까지 인구 2,400만, 역대 GRDP 성장률 5% 이상 달성, 일자리 300만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 오늘 열리는 <남부수도권 구상> 대토론회에서는 산업연구원장을 역임한 장지상 (경북대 명예교수)의 <남부 수도권 조성을 위한 전략과 과제 ; 남부권 경제생태계 조성 중심으로> 발제를 시작으로 토론자로 나선 박동철 (전 포스리 상무)의 <탄소중립을 포함한 기존 산업의 고도화 및 탄소중립산업벨트 조성 방안>, 이현욱 (전 경기도시주택공사 사장)의 <신산업특화수도 혁신 거점 도시의 필요성 및 건설 방향>, 이동진 (상명대 교수)의 <사회기반시설 확충 등 국민의 실질적 정주여건 개선에 대한 비전>, 박재필

(군산대 교수)의 <남부수도권 구상 가능성에 대한 평가 및 법제도 정비 안>을 중심으로 열띤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사회는 남부경제권을 오랫동안 연구해 온 김종웅(대구한의대) 교수가 말한다.

- 오늘 토론회를 주최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 선대위 남부권경제대책위원회(홍의락 상임위원장)는 김승남(전남), 김성주(전북), 송갑석(광주), 이상헌(울산), 박재호(부산), 김정호(경남) 국회의원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향후 <남부수도권 구상>의 실현을 위해 각 권역별 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 홍의락 남부권경제대책위 상임위원장은 “남부 수도권 구상은 대전환기 시대에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담대한 구상이자 전환적 공정성장의 핵심 전략”이라며 “수도권 과밀과 지방소멸로 정체되고 있는 저성장의 늪을 빠져나가고, 무엇보다 지역의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가야 하는 현실을 바꿀 강력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끝.>

※ 첨부자료 <국회의원 36인 지지선언 2022. 2.10>

※ 첨부자료 <국회의원 36인 지지선언 2022. 2.10>

새로운 남부 수도권 시대! 이재명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남부지역 국회의원 일동은 과도한 수도권 밀집 현상과 심각한 지방 소멸의 위기를 막고, 지역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새로운 경제 성장의 희망을 만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남부 수도권 구상>은 중앙정부의 시혜적 분배와 분산에 의존해왔던 기존 균형발전 정책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이라는 이분법을 ‘수도권과 또 하나의 수도권’으로 바라보고, 지역을 그 자체로 독립적인 성장 동력의 주체로 내세우는 획기적 구상입니다.

우리 남부권 국회의원 일동은 이재명 후보의 <남부 수도권 구상>이 역대 민주당정부가 추진해왔던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최종판이자 세계 5대 강국을 향한 담대한 경제성장 전략으로 높게 평가하며 강력한 지지를 보냅니다.

수도권 집중은 필연적으로 지역 경제의 붕괴를 초래합니다. 이는 단순한 우려를 넘어 남부권에는 이미 현실화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더 나은 성장과 미래를 도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는 인구의 50.2%, 100대 기업의 91%, 금융의 67%가 몰려 있으며, 대학과 연구기관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이에 영호남과 제주를 묶는 남부권을 메가리전(Mega-Region)으로 만들어, 수도권과 충청·강원을 포함한 중부권 메가리전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성장을 선도하는 구상은 수도권과 지방이 공생하는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키워드가 될 것입니다.

이미 세계는 메가리전의 경쟁 시대에 돌입했습니다. 메가리전의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남부수도권은 기존 동남권과 호남권, 대경권 등 각 권역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어 남부권 전체를 인구 1,800만 규모의 독립적 경제구역으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재명 후보는 2035년까지 인구 2,400만, 추가 일자리 400만개, 평균 지역경제성장률 5%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산업화 시기 한국 경제를 이끌었던 남부권의 산업역량과 새롭게 충전되는 혁신역량이 결합한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한 일이라 확신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보여준 강력한 추진력과 정책 실행력이 바탕이 된다면 그 실현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입니다.

우리 남부권 국회의원 일동은 영·호남·제주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수도권 창출이 바로 미래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이자, 지방소멸을 막는 강력한 대안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를 통해 남부권 전체를 아우르는 제조혁신 생태계, 혁신형 창업생태계, 생활경제 생태계 조성에 앞장 서 나갈 것입니다.

특히, 더 이상 지역의 2030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서울과 수도권으로 떠나야 하는 일이 없도록 지역에 더 많은 일자리, 더 좋은 정주 환경이 되도록 노력해 갈 것입니다.

우리는 이재명 후보가 남부수도권 구상을 통해 위태로운 외바퀴 경제발전을 두 바퀴 경제발전으로 만들어 서울수도권과 지방을 모두 살려내고 세계 5위 경제 대국의 위업을 달성할 것을 확신합니다. 다시 한 번 강력한 지지를 보냅니다.

2022년 2월 10일

더불어민주당 남부지역 국회의원 일동
(송갑석, 김승남, 전재수, 최인호, 서삼석, 위성곤,
민형배, 주철현, 김희재, 소병철, 이용빈 등 총 36명)